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6.(목) 11:00
2026. 11. 27.(금) 조간
배포 2026. 11. 26.(목) 06:00

찬 바람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반려동물과 겨울 동행

- 겨울철, 반려동물 건강관리·생활 속 안전 등 동물을 위한 배려수칙 등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맞아 반려동물 건강관리, 생활 속 안전수칙과 함께 추운 날씨 속 우리 주변의 동물을 위한 배려 방법을 안내했다.

먼저, 겨울철에는 실내 생활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온도와 습도 관리가 중요하다. 적정 온도는 개·고양이, 단모·장모종,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반려동물 상태에 맞게 실내 환경을 조절하고, 특히 단모종이나 노령동물은 체온을 잃기 쉬우므로, 적정 범위 안에서 담요 등을 제공해 따뜻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바깥 활동이 어려운 날에는 간식을 숨겨 찾게하는 노즈워크나 터그놀이 등 실내놀이로 활동량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 아울러 겨울철에는 호흡기 건강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켄넬코프 등에 대비해 예방접종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반려동물의 감전·화상 사고에도 주의해야 한다. 전선은 정리하거나 덮개를 씌우고 난로 등 열원 주변에는 울타리를 두며, 전기장판도 장시간 접촉하면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실외 생활 동물에게는 찬 바람을 막을 보온 쉼터를 마련해주며, 눈길 산책 후에는 제설제에 노출된 발바닥을 씻고 말린 뒤 보습해 주는 것이 좋다.

한편, 연말연시 새 가족을 맞이하려 한다면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동물등록에서부터 실생활에서 필요한 반려동물 돌봄 방법을 담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니 입양에 앞서서 반려동물 양육에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미리 익혀두기를 추천한다.

연말을 맞아 유기동물 입양과 반려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도 이어진다. 경기도는 11월 28일 '2026 반려마루 여주 입양자의 날(입양가족 홈커밍데이)'을 개최한다. 제주에서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겨울축제 'ICC JEJU 윈터페스타'에는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윈터펫 빌리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찬 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따뜻한 관심과 작은 배려로 반려동물과 우리 주변 동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참고. 「반려동물과 겨울동행」 포스터

담당 부서	동물복지정책국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연숙 (044-201-2611)
		담당자	사무관	김범진 (044-201-26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반려동물과 겨울동행」 포스터

